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윤태훈 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07 18:27 수정 2021.10.07 18:29 호수 1604 댓글 0

“남은 임기 동안 불교중흥 위해 노력”

코로나19 상황서 취임...어려운 시국서도 '행복바라미' 성료 등 성과 역량결집 위한 '불자네트워크' 앱 준비완료...불교성전 보급에도 진력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했을 당시 조계종으로서 종단을 외호하고 종단 총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신도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임했기에 대면회의금지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잘 돌파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만료까지 3년여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중앙신도회가 종단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회장은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 임기를 시작해 '재가불자들의 원력을 결집해 불교진흥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그는 “1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봤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도회를 별 탈 없이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종단발전의 밑거름이 될 사업들을 고난 속에서도 착실히 진행할 수 있어 부처님의 가피라 여긴다”고 운을 뗐다.

주 회장은 취임 직후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했다. 하루 평균 30km 이상 걷는 순례는 그에게 육체적인 힘들을 주었지만 동시에 회장으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해야할지에 대한 계획도 명료해졌다. 그는 “21일간 매일 자비순례길을 걸으며 마주친 육체적 고통, 추운 날씨, 새벽이슬 등으로 힘들었으나 중앙신도회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회주 자승 스님으로부터 '사부대중이 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불교중흥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아 그동안 생각해왔던 '재가불자의 본분'에 대한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큰 법당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모임이 금지되자 최초로 온라인 언택트로 진행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성료한 것을 보고 이에 대해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108개 사찰의 불자들이 실시간으로 동참했고 아울러 유튜브 중계로 쌍방소통하며 단체로 '금강경'을 독송했다”며 “우리 불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법당 안에서 일심으로 뭉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NH농협은행 301-0189-0372-01
KB국민은행 023537-04-004063

최신뉴스

더보기 >

교계
대법원, “조계종도 조 징계 부당하다” 판결



한마음과학원, 제6회 학술세미나 열려

2001년 중단된 '뇌허불교학술상'...20년 만에 ... 제2회 운강명상학술상 이영진, 하현주 수상...1· 불교문예연구소, 제18차 학술대회 개최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사유하는 기쁨' 출판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소집...'정청래 의원...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주년 기념 인연이...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날 기념식 국무...

연재

< >

- 신현득의 내가 사랑한 동시**
112. 유동숙의 '가을 비 소리'
- 김호귀의 공곡집과 선문담**
83. 제82척 덕산상당(德山上...)
- 이필원의 붓다 교화에 나서다**
82. 재가신자가 병에 걸렸을 ...

이와 함께 제27대 집행부 핵심공약 사업인 ‘불자역량결집 정보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불자네트워크’ 앱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한 주 회장은 “IT가 강조되는 4차 산업시대, 디지털을 이용해 전국 불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혜택을 주고받음으로 불자라는 자부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불자네트워크’ 앱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 불자들의 정보가 지역·직종별로 세분화 돼 담긴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조계종 사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불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메신저 기능까지 탑재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 2월, 2년여의 노력 끝에 발간된 불교성전 보급 불사에도 열심이다. 5월27일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도반HC와 불교성전 법공양 챌린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으며 주 회장은 천리순례가 끝나는 대로 각 교구를 순회하며 불교성전 보급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주 회장은 “불교성전은 단순한 책이 아닌 부처님의 말씀이 오롯이 담긴 불법”이라며 “성전 보급 자체가 법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며 불자로서 응답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 주 회장은 “불자들이 개미처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마리의 개미는 힘이 약할지언정 모이면 집도 짓고 무거운 물건도 옮기는 등 협력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주 회장은 “신도들이 원력을 결집해 종단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불자들의 힘을 합하면 한국불교의 중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회장은 “앞으로도 재가불자들의 역량을 모아 불교진흥에 앞장설 것”이라며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중앙신도회장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환히 웃었다.

구례=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달다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울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 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김효선의 어른신을 위한 Q&A

17. 가족돌봄



명법문 명강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많이 본 뉴스

- 01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 02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03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04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 05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6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 07 오대산 정취와 뮤지컬을 한눈에...‘사찰 뮤지컬’이라는 장르 탄생
- 08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봉은사 개산대제,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업그레이드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별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난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 ▶ [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씬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 ▶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역사의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가로지르다
- ▶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동도사 진신사리 친견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0000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⓪ BEST댓글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B